

Sector Comment

K-POP Rise & Release

2025.07.07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

김대성 연구원 02-709-2886 / rlarla6019@ds-sec.co.kr

K-pop R&R 002. 블랙핑크 글로벌 투어 시작

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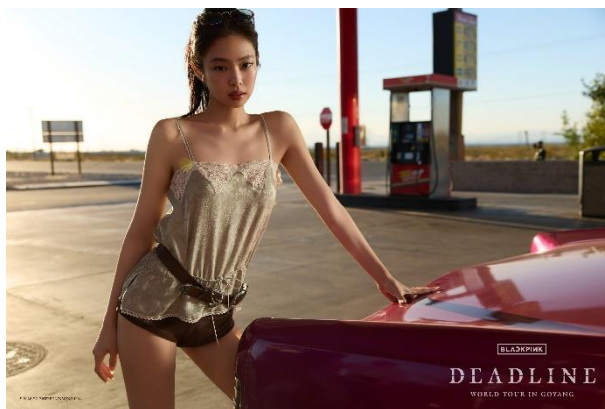
■ BLACKPINK 글로벌 투어 <DEADLINE> 개막. 7/5-6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완전체 활동 시작

- 7/5(토) BLACKPINK의 2025-2026 글로벌 투어 <DEADLINE> 개막. 신곡 <JUMP(뛰어)> 라이브 최초 공개
- 앨범 공개는 22년 9월 정규 2집 <BORN PINK>이후 약 3년만. 공연 전 티저 클립 Ready to Jump? 공개
- 월드 투어는 22-23 <Born Pink> 이후 2년만. 당시 공연횟수 66회, 모객수 180만명, 총매출액 3.3억 달러 기록
- 현재까지 공개된 25-26 <DEADLINE> 일정은 공연횟수 31회, 모객수 150만명, 회당 5만명. 향후 일정 추가 기대
- 이번 투어는 이전 공연대비 규모가 확대된 스타디움 투어로 K-pop 여자 아이돌 최초 입성 공연장 다수

■ BLACKPINK 앨범 및 투어 활동 성과는 YG의 2025-26년 실적 성장 모멘텀이 될 것

- 당사는 BLACKPINK의 완전체 활동에 따른 YG 실적 기여 매출액을 5,450억원으로 추정(YG 24년 매출의 149%)
- 앨범 판매량 300만장, 투어 모객수 200만명, MD는 공연 티켓 매출의 절반으로 가정
- 음원 및 MD 수익 확대에 따른 추가 수익도 가능. 최근 K-pop 공연 티켓 단가 상승도 긍정적
- BLACKPINK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25년 7월 6일 기준 1,635만명으로 전월비 +3% 상승
- 최근 엔터 업종 주가 조정으로 YG의 PER 밸류에이션은 컨센서스 기준 25년 29배, 26년 23배 수준

그림1 BLACKPINK <DEADLINE> 투어 시작과 신곡 공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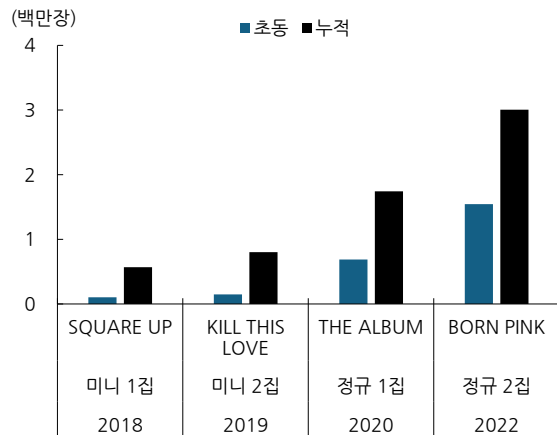
자료: BLACKPINK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BLACKPINK 글로벌 투어(25-26) 성과 실적 가정

구분		BLACKPINK
앨범	$A=a*b$	450억원
이전 판매량		BORNPINK(초동 150, 누적 300만장)
신규 앨범 판매량	a	300만장
판매 단가	b	15,000원
공연	$B=c*d*e$	($c*d*e$) 2,500억원
이전 공연 모객수		18-19 In Your Area(47만명)
		22-23 Born Pink(180만명)
25-26 모객수	c	200만명
티켓 가격	d	25만원
할인을	e	50%
MD	$C=c*d*f$	2,500억원
티켓 매출 대비	f	50%
합산 매출	$A+B+C$	5,450억원
24년 매출액		YG 매출액 3,649억원
24년 매출액 대비		14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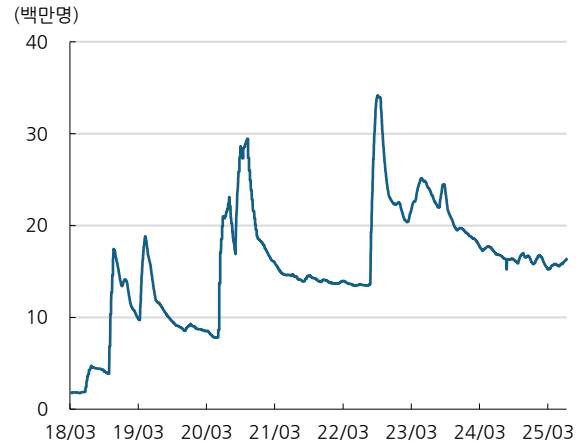
자료: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

그림3 BLACKPINK 앨범 판매량 추이(국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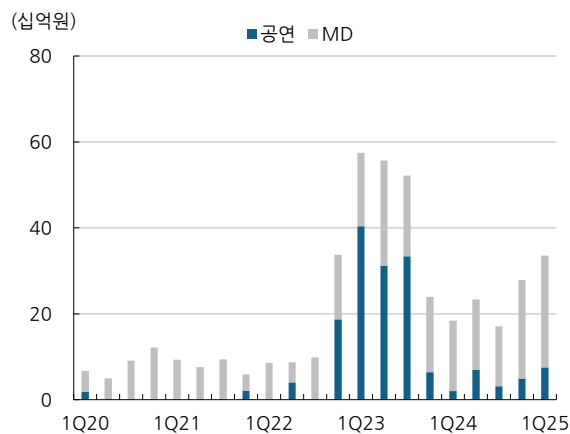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터차트, 씨클차트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스포티파이 BLACKPINK 월간 청취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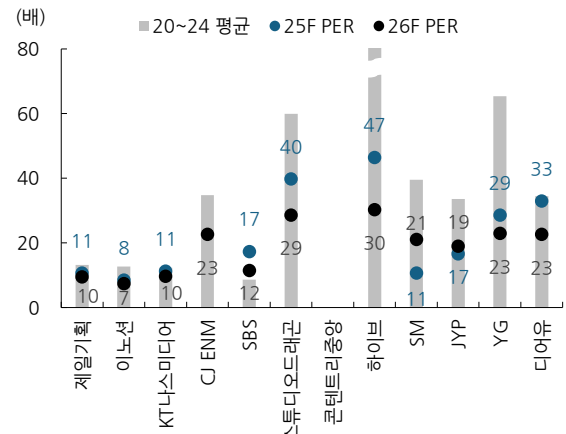
자료: Spotify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YG 엔터 분기별 공연과 MD 매출액 추이



자료: YG엔터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미디어·엔터 PER 밸류에이션 비교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